공인구 반발력 축소 후폭풍…우려가 현실로

역시나 대포 기근…팀당 100홈런도 버겁다

팀 홈런 1위 NC, 120개에 그쳐
지난해 SK, 233홈런과 큰 차이
LG·KIA 등 6팀이나 100개미만
팀 최다홈런타자 20개 못 넘기도

2019시즌 프로야구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바로 홈런의 감소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공인구 반발력 축소 여파로 리그 전체적인 홈런수가 줄어들었다. 15일까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은 NC 다이노스인데, 120홈런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지난해 팀 홈런 1위 팀인 2018년 SK 와이번스와는 큰 차이가 난다. 2018년 SK는 233홈런으로 시즌을 마쳤다. 잔여경기가 남아 있다 해도 두 팀 간의 격차는 이미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범위를 10개 구단 전체로 늘려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 시즌에는 최근 수년 간 볼 수 없었던 상황까지 연출될 전망이다. 바로 팀당 홈런이 100개가 되지 않는 팀들이 여럿 나오는 것이다.

15일까지 팀 100홈런을 때리지 못한 팀은 KT 위즈(94개), 롯데 자이언츠(89개), LG 트윈스(87개), 한화 이글스(83개), 두산 베어스(79개), KIA 타이거즈(73) 등 무려 6팀에 이른다. 이 팀들의 잔여경기는 이제 10경기 남짓, 올 시즌 추세로 볼 때 100홈런을 넘기지 못하는 팀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현실이다.

한 시즌 팀 100홈런은 최근 모든 팀이 기록으로 따지지도 않을 만큼 자주 나온 숫자다. 144경기 체제를 시작한 2015년부터는 매해 10개 팀이 팀 100홈런을 기록했다. 그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도 마지막으로 팀 100홈런을 기록하지 못한 팀은 2014년 LG(90)개였다.

거포들의 존재감이 묻혔다는 게 역시 가장 큰 원인이다. 키움 히어로즈의 경우 제리 샌즈와 박병호의 홈런왕 다툼으로 이미 팀 100홈런을 넘었지만, 다른 팀은 압도적으로 장타를 때리는 타자들의 부재로 이 같은 기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KT는 팀 내 최다홈런타자가 멜 로하스 주니어(22개)고, 롯데는 전준우(22개)다. 이어 LG는 유강남(14개), 한화는 이성열(21개), 두산은 오재일(18개), KIA는 최형우(17개)가 각각 팀 최다홈런을 책임지고 있다. 뒤따르는 타자들의 경우에도 최다홈런타자와 격차가 큰 경우가 많다.

홈런의 감소는 예기치 못한 추세로까지 전개되며 그야말로 장타의 급감을 불러왔다. 시즌이 막판으로 가고 있는 이때, 이제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숫자마저도 갑작스럽게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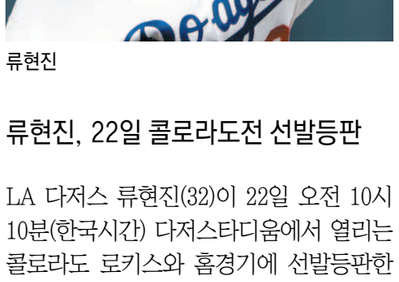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류현진

류현진, 22일 콜로라도전 선발등판

LA 다저스 류현진(32)이 22일 오전 10시 10분(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한다. 15일 뉴욕 메츠전(원정)에서 7이닝 2안타 6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한지 7일만이다. 올 시즌 27경기에서 12승5패, 평균자책점(ERA) 2.35를 기록 중인 류현진은 콜로라도를 상대로는 4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 ERA 4.87에 그치고 있다. 콜로라도전 통산성적은 14경기에서 4승7패, ERA 4.94다. 올 시즌 6월 23일 홈에선 6이닝 3실점 1자책점의 무난한 투구를 했으나, 6월 29일 '투수들의 무덤'인 쿠어스필드 원정에선 4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다. 다행히 지난달 1일 올 시즌 2번째 쿠어스필드 원정에선 6이닝 무실점으로 만회했다. 콜로라도 타선에서 류현진의 '천적'은 놀란 아레나도로 통산 타율 0.536(28타수 15안타) 4홈런 10타점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류현진은 22일 콜로라도전을 포함해 2차례 더 등판한 뒤 정규시즌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

추신수, 오클랜드전 3안타 1사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7)가 16일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 1번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3안타 1사구로 100% 출루를 달성했다. 12일 탬파베이 레이스전(홈)부터 4연속경기 안타행진을 펼치는 한편 시즌 타율은 0.264에서 0.268(530타수 142안타)로 끌어올렸다. 출루율도 0.365에서 0.370으로 상승했다. 1회 첫 타석에선 오클랜드 좌완 선발 션 마네아의 3구째 시속 147km 직구에 허리를 맞고 걸어 나갔다. 0-4로 뒤진 3회 1사 후에는 마네아의 4구째 슬라이더를 중전안타로 연결했고, 0-5로 뒤진 6회에는 선두타자로 등장해 마네아에게서 다시 유격수쪽 내야안타를 빼앗아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8회 무사 2루 선 상대 좌완 불펜 헤수스 루사르도에게서 또 한번 유격수 방면 내야안타를 뽑았다. 추신수의 맹타에도 불구하고 팀은 1-6으로 패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3번타자 김하성



4번타자 박병호



5번타자 샌즈

'키벤저스', 동반 100타점-100득점 쏠까?

김하성 101타점·108득점 이미 달성
박병호 -5타점-10득점, 샌즈 -1득점

키움 히어로즈는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다. 일명 '키벤저스' 타선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하성(24)-박병호(33)-제리 샌즈(32)로 이뤄진 클린업트리오의 화력이 특히 매섭다.

이들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지표 하나가 있다. 100타점-100득점 동반 달성이다. 김하성은 벌써 성공했다. 15일까지 101타점-108득점을 올렸다. 역대 33번째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최초 달성자는 1991년 114타점-104득점을 뽑은 빙그레 이글스(현 한화) 장종훈이다.

100타점-100득점은 해결사 본능과 더불어 빈번한 출루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특히 세 자릿수 득점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 뒤를 받치는 타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중심타선보다는 테이블세터로 자주 기용된 김하성을 박병호와 샌즈가 꾸준히 홈으로 불러들인 덕분이다.

샌즈의 100타점-100득점 달성도 유력하다. 득점 한 개만 더 보태면 된다. 이미 타점은 110개다. 키움이 6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어 샌즈의 100타점-100득점 클럽 가입은 시간문제다. 3번은 물론 2번 타순에도 종종 배치된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샌즈가 100타점-100득점에 성공하면 외국인타자로는 역대 11번째다.

또 샌즈가 100득점을 채우면 2014년 넥센(현 키움) 박병호(124타점-126득점)-강정호(117타점-103득점), 2015년 NC 다이노스 나성범(135타점-112득점)-에릭 테임즈(140타점-130득점)와 넥센 박병호(146타점-129득점)-유한준(116타점-103득점), 2016년 NC 나성범(113타점-116득점)-테임즈(121타점-118득점)에 이어 역대 5번째 같은 팀 2명의 동반 달성이 된다. 한 팀에서 3명의 타자가 함께 달성한 적은 아직 없다.

홈런왕 복귀를 노리는 박병호도 15일까지 95타점-90득점을 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박병호는 힘들어 보인다. 득점이 문제다. 남은 6경기 모두에 리드오프로 나선다고 가정해도 전망이 밝지 않다.

그 대신 박병호는 30홈런-100타점 달성 여부로 주목받을 만하다. 지난해까지는 42명의 타자가 총 75차례에 걸쳐 작성했다. 공인구의 반발력을 낮추면서 '투고타저' 양상이 엄습한 올 시즌의 특성을 고려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기록이다. 32홈런을 친 박병호가 세 자릿수 타점을 찍으면 6시즌 연속 30홈런-100타점을 신고하게 된다. 본인이 보유한 이 부문 KBO리그 최장기록을 한 시즌 더 연장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LG 페게로

LG 페게로 홈런타구 속도 170km 'KBO리그 넘버1'

8월 이후 '5홈런이상 타자'중 1위

카를로스 페게로(LG 트윈스)가 KBO리그에 합류한 뒤 리그에서 가장 빠른 홈런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O 공식 기록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는 16일 타구추적시스템(HTS) 데이터를 바탕으로 8월 이후 홈런 타구 속도를 분석했다. 단, HTS가 설치되지 않은 울산 포항 청주구장에서의 홈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11일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KBO 리그 데뷔 홈런을 터뜨린 페게로는 15일까지 총 6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 타구의 평균 속도는 시속 170.1km를 마크, 8월 이후 HTS 기준 5홈런 이상 기록한 타자 12명 중 1위에 올랐다.

올 시즌 전체를 대상으로 10홈런 이상 기록한 타자 가운데서는 15일 현재 28개의 홈런을 기록한 제리 샌즈(키움 히어로즈)가 홈런타구 평균속도에서 1위(161.6km/h)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페게로가 홈런사냥에 본격 합류한 8월 이후만 놓고 보면 페게로의 타구속도가 단연 눈에 띈다. 특히 15일 최원준(두산 베어스)의 커브를 공략해 때려낸 투런포는 시속 178.8km(상하 각도 41.8도)의 속도로 날아갔다. 이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두 번째로 빠른 홈런 타구다. 1위는 5월 26일 NC 다이노스전에서 제이미 로맥(SK)이 기록한 시속 179.0km.

8월 이후 홈런 타구 평균 속도 2위는 시속 163.3km를 나타낸 멜 로하스 주니어(KT 위즈· 6개)가 차지했고, 시속 162.2km의 박병호(키움·9개)가 뒤를 이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